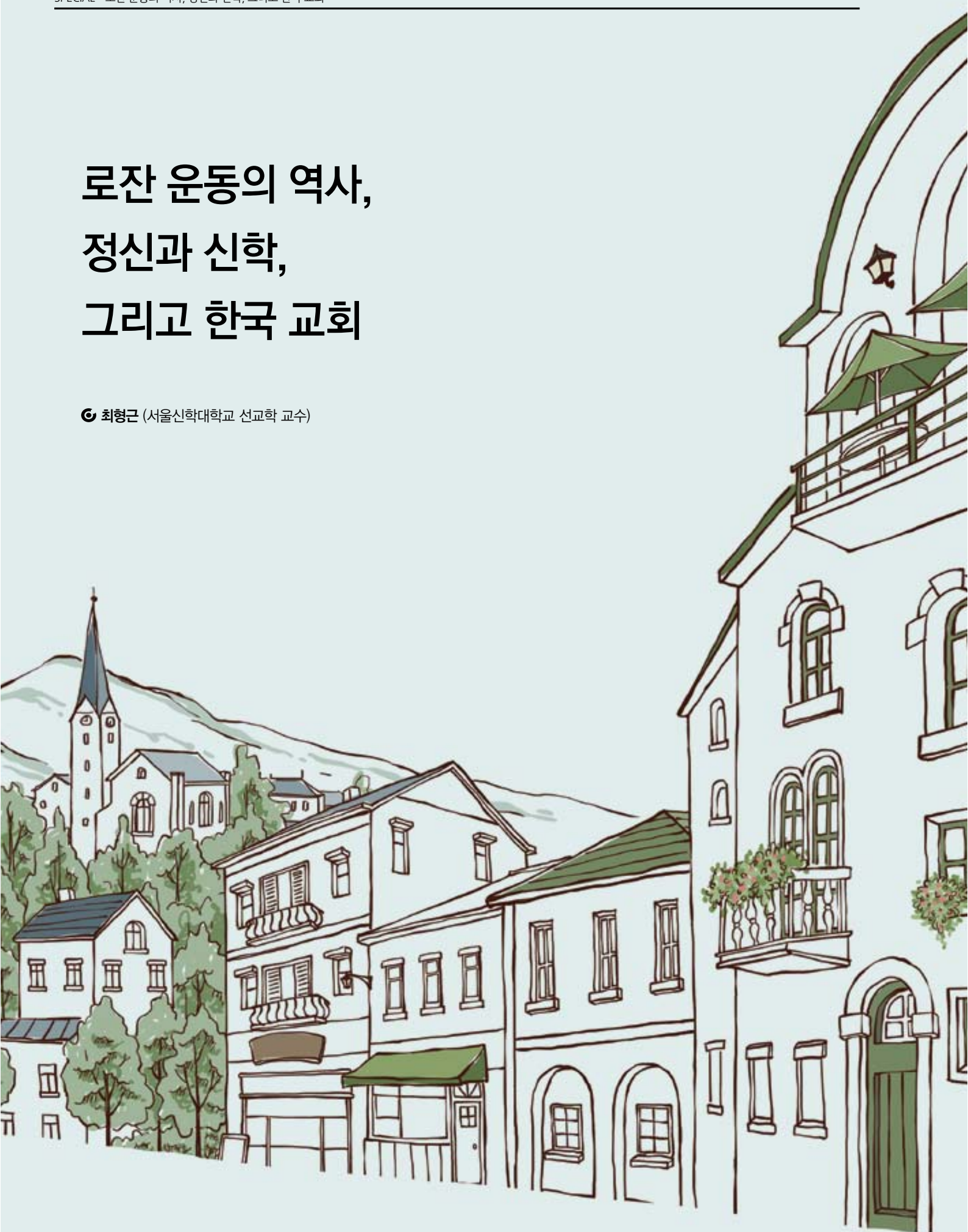


# 로잔 운동의 역사, 정신과 신학, 그리고 한국 교회

◎ 최형근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 로잔운동의 역사적 배경

19세기 개신교 선교현장에서 협력은 중요한 문제였다. 선교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이들 중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도 있었다. 그는 18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고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년 후, 1910년 6월 14-23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의 뉴칼리지에서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신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기독교 3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불리는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생활과 사업(Life and Work), 그리고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운동이 이 대회를 기점으로 태동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로잔 세계복음화위원회(LCWE), 세계복음주의연맹(WEA)으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진영이 에딘버러 대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선교대회를 각각 에딘버러 뉴칼리지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에딘버러 대회를 기념한 이유는, 학생자원운동이 내걸었던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 하자!”라는 슬로건과 1910년 에딘버러 대회의 슬로건이 동일했고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의제도 연합과 일치보다는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이다. 즉 에딘버러 대회를 가능케 했던 핵심 동력은 18세기와 19세기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 학생자원운동과 초교파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세계복음화였다. 특히 1974년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전 세계로 약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74년, 복음주의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인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로잔 운동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1910년 에딘버러 대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에는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득세하면서 거의 모든 교단과 선교단체, 교육기관을 통제했다. 1921년에 조직된 국제선교협의회(IMC)도 복음적인 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YMCA, YWCA, 학생자원운동(SVM),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도 복음적인 경향으로부터 멀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생겨나면서 1974년까지 복음주의 선교는 인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성장했다. 신설된 EFMA는 새로운 학생 사역과 교파 선교 단체의 보호막이 되었고, 풀러신학교와 빌리그래함 전도협회 설립, 크리스채니티 투데이의 창간 등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를 도외시키고 세속적 의제로 함몰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복음주의 선교의 동력을 제공했다. 복음주의 진영의 결집하게 된 데는 1960년대 들어 “인간화”와 “세속화”로 대표되는 WCC 진영이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의 성향을 띄면서부터이다. 1961년 WCC 뉴델리 회의에서는 IMC가 WCC의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관으로 통합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의도와 달리 에큐메니칼 진영 내의 선교와 전도의 동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또한 제3세계가 서구 식민주의에서 독립하면서 반서구 성향을 띄고 외국 선교사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특히 로잔대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인 1973년 방콕에서 열린 WCC의 선교와 전도위원회(CWME)가 주최한 대회에서는 서구 선교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즉 해외 선교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선교사들도 현지에서 철수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복음주의 지도자인 빌리 그래함과 칼 헨리(당시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편집인)는 서구 신학의 급진적인 변화를 염려하여 WCC와 대조되는 국제적 규모의 복음주의 진영을 규합하는 대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복음화 과업을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 베를린에서 “하나의 종족, 하나의 복음, 하나의 과업”이라는 주제로 100개국 1,2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세계선교대회가 열렸다. 또 같은 해에 IFMA와 EFMA가 연합 후원하여 휘튼대학교에서 258개 이상의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93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세계선교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역량을 결집하고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빌리 그래함과 존 스토틀 등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1974년 로잔대회가 소집되어 150개국에서 2,700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제1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에 매우 중대한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신학적 근간을 제공한 로잔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LCWE), 그리고 지상대 위임령에 대한 “종족 중심의 해석”이 그것이다. 제1차 로잔대회 이후 설립된 로잔위원회는 1980년에 태국 파타야에서 세계복음화협의회를 개최했고, 각 지역과 국가들에서의 상

황화, 복음과 문화, 동질집단의 원리, 단순한 삶의 양식 등 소 협의회를 개최했다(<http://www.lausanne.org> Documents 부분 참조). 제2차 로잔대회는 1989년 마닐라에서 열렸다. 173개국에서 4,3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도 참석자 및 참관인으로 함께했다. 마닐라대회에서는 로잔 언약을 확고히 하는 마닐라 선언문(Manila Manifesto)과 함께 로잔의 비전을 담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라는 슬로건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로잔운동은 1990년대 유럽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다소 활력과 지지를 잃었다. 2000



년대 들어 로잔운동은 다시 한 번 활력을 얻게 되었는데,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로잔포럼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리더십 팀을 구성했고 1,500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32개의 로잔 문서(LOP)를 내놓았다. 이후, 로잔 리더십은 여러 번의 모임을 거쳐 2010년 10월 16-25일, WEA와 공동으로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를 개최하고 대회공식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내놓았다.

### 로잔운동의 정신과 신학: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의 공식문서인 로잔 언약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제2차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채택된 로잔운동의 정신이자 슬로건인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형성된 선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복음과 교회와 세상, 이 세 요소들은 본질과 그 본질에 근거하여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현장, 무대를 말한다. 이 세 단어들 앞에 온전한 혹은 온(holistic)이란 형용사를 붙인 것은 축소되고 왜곡된 복음,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 그리고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고 화목케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로잔 케이프타운대회는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상”이라는 3개의 축을 근거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늘날의 도전적 이슈들을 다루었다. 먼저,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깨어진 세계에서 화해의 복음을, 온 세상은 타종교와 타문화 그리고 남은 과제와 선교전략을, 온 교회는 교회의 순결함과 청렴함 그리고 교회의 협력과 일치 문제를 다룬다. 이런 의미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운동 내에서 논의되어 온 선교신학이 통전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이 슬로건에는 풍부한 반향들과 명백한 의미, 호소가 담겨 있기에 그 깊이를 온전히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작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로잔운동이 산출한 주요문서들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궁극적 규범성과 기독교론(Christology)을 중심으로 전개된 세계복음화이다. 로잔운동이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핵심은

로잔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역사로부터 분리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다원적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불변하는 복음의 메시지이다. 로잔운동은 우리가 믿는 바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확증한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담고 있다. 로잔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역사로부터 분리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특징은 케이프타운 서약에 잘 나타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로잔 언약에 기초하여 성경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세상이 제기하는 의제들을 풀어나간다. 즉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명제들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역사 속에 나타난 계시의 본질을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 읽어내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들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하여 복음 증거의 내용과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 오늘날 상대주의적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전파하며 삶에 적용하는 과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절대적 요소이다.

로잔 언약이 주로 광범위한 신학적/교리적 전제들을 재확인했고, 마닐라 선언문이 1980년대의 상황에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원리와 방법들을 제시했다면, 케이프타운 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불변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보다 광

1974년 로잔운동이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 복음주의 운동에

로잔 언약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그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범위한 행동지침들을 통전적으로 제시하였다. 2부로 구성된 케이프타운 서약(“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와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고 그 선교의 무대인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서약의 1부를 구성하는 10개 조항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를 삼위일체의 교리와 연결하며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규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한 1항은 전문의 성격을 띠고 있고, 2항은 유일신 하나님의 본성과 교회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3-5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6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거대 서사(grand narrative)로 본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 인격, 행위를 계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래적 증거로서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을 형성한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

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억과 소망을 형성하며 그들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지배한다. 1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7항은 세상을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며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간과했던 세상과 문화에 대한 중요한 관점들을 기술한다. 8항은 복음에 관한 핵심적 주장들을, 9항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다. 1부의 마지막이자 결론인 10항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온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확증한다. 1부는 사랑이라는 고백적 언어를 사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한 복음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의 관계로 묘사한다.

6개 항으로 구성된 2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랑과 순종을 한데 묶는다.”로 시작하며, 1부의 고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고 행동할 것인가를 말한다. 케이프타운 대회의 틀인 복음과 세상과 교회를 중심으로 각각 2개의 주제들을 배열하고, 각각의 주제는

다시 4-7개의 이슈들(총 33개)을 다룬다. 또, 각 장은 주어진 주제들을 중심으로 복음과 세상과 교회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2부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복음에서 교회, 세상에서의 복음 다시 세상, 교회의 순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들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로잔 언약의 복음 전도의 우선성(primacy)에 대한 강조는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궁극성(ultimacy)으로 전환되었다. 즉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순서적인 접근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복음 전도를 궁극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인간이 처한 곤경과 필요에 따라 선교의 출발점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통전적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고 우리의 사회참여는 복음전도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궁극성 중심의 해석을 제시한다.

2부 5-6항은 복음과 세상 사이의 언약백성인 교회가 복음의 빛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일치와 동반자 협력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성적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탐욕의 우상을 거부하고 겸손과 정직성과 단순한 삶의 방식을 회복하라는 5항의 예언자적 외침은 복음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철저하게 질타하는 음성이다. 결론에서는 두 가지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 급진적 제자도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과 일치하는 십자가 중심의 화해이다. 즉, 제자도와 화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서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복음, 세상, 교회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1부의 고백과 2부의 행동에의 요청을 상보적으로 연결한다.

## 로잔운동이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주석과 해석)와 적용(삶)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로잔운동이 주장하는 헌신은 단순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헌신이 아니라 믿는 바를 추구하는 제자도(discipleship)이다. 그러나 제자도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구원(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될 때, 그 본래의 의미는 축소된다. 이러한 성향이 복음주의 진영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어 교회의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사회변혁)를 이분화시키는 오류와 환원적 접근을 낳았다. 나아가 제자도의 상실과 왜곡된 이해는 만인 제사장직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창조세계의 청지기직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켰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상숭배는 하나님의 선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세속적 지배문화에 종속시킨다. 이것이 바로 로잔 운동이 오늘의 한국 교회에 던지는 중대한 메시지이다. 1974년 로잔운동이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에 로잔 언약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그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통해 삶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들과의 타협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추구하여 교회 자체의 DNA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음의 환원주의, 혼합주의는 한국 교회의 교파분열과 신앙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초래했다.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세상에 보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원과 화해,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최형근**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다. 하트스트림 선교사 멤버케어 센터 공동대표이며,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전,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으로 섬기고 있다.